

懺悔火候認識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차 례

一. 序(서).....	3
二. 火候(화후).....	4
三. 事(사).....	5
四. 認識(인식).....	7
五. 懺悔의 復活(참회의 부활).....	9
六. 懺悔文(원참문).....	11
七. 懺悔愿文(참회원문).....	12
八. 理懺悔揭(이참회계).....	12
九. 事懺悔揭(사참회계).....	13
十. 懺悔愿文(참회원문).....	13
十一.懺悔渡罪經解說文(참회도죄경해설문).....	15
十二.私心(사심).....	20
十三.公心(공심).....	22

序(서)

현대인 수도의 첩경은 참회의 부활 뿐이다. 왜냐하면 성모수원(聖母收圓)의 대도(大道)는 참회(懺悔)로 하여금 죄를 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본 도단은 김복당 노전인(老前人) 한국 개황 45 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1992 년 전국 참화반기(懺悔班期) 대법회를 열었다. 이에 김복당 노전인(老前人)이 1977 년 8 월과 1980 년 1 월, 후학들에게 진참회(眞懺悔)의 인식과 방법을 설(說)하였던 성훈(聖訓)을 다시 되새기어 수행의 지남침을 삼고자 원참문(願懺文)과 참회도죄경(懺悔渡罪經)을 함께 엮어 간행한다.

도친제현은 본서(本書)의 뜻을 취하여 김복당 노전인(老前人)의 참회도죄(懺悔渡罪), 보도중생(普渡衆生)의 위도정신(爲道精神)을 되새기고 진참회(眞懺悔)로 수행(修行)의 지남침(指南針)을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재단법인 국제도덕협회(일관도) 편집실

火 候 (화후)

화후(火候)는 내화성(耐火性)의 도수(度數)를 말하는 성질(性質)이다. 인체내(人體內)에서 일어난 겁화(劫火)는 염성(炎性)의 질병(疾病)이다.

인간(人間)의 성질화(性質火)를 제지(制止)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社會)의 도태(淘汰)를 일으키는 원인(原因)이 된다.

수도(修道)의 첫째 공부(工夫)는 화후(火候) 염두(念頭)에서부터 시작(始作)하여야 한다. 십년의 수도는 일일의 참회(懺悔) 보다 못하며 설익은 성격(性格)은 화후(火候)가 부족하므로 또 다시 볶아 익혀야한다.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참회(懺悔)하고 진리를 안다는 눈치를 하지말고 일을 잘한다는 눈치 똑똑한 눈치 등(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모두가 화후(火候)의 부족이며 낡고 모자라는 인간이다.

앞으로 화후 성도(火候 成道)하는 데 대(對)하여 현재 공(功)이 있나 죄(罪)가 있나 또 두고 보아야 할 일인데 남의 죄악(罪惡)을 미워하는 것은 죄념(功德)도 죄열자(罪孽子)이다. 공덕을 왜 죄(罪)라고 하는가 하면 참회(懺悔)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성(習慣性)이 죄념(罪念)은 영질적(靈質的)인 악마(惡魔)가 되고 절대덕인 노모님께 못가는 뜻이다. 참회(懺悔)는 진수(眞水)요 화후(火候)는 진화(眞火)요 현재는 진수(眞水) 진화(眞火)의 전성기(眞成期)이다. 진도(眞道) 및 진법(眞法)이 좋다고 악용하는 조직체제등(組織體攄)은 죄를 짓는 방식이다.

원(圓), 방(方), 각(角), 천(天), 지(地), 인(人), 삼조일체(三曹一體)의 답안은 시(時), 공(空), 량(量)의 원점(原點)이며 이십세기 인류역사 최대(二十世紀 人類歷史 最大)의 인문계 도적(人文系 道的)인 전통적 예(禮) 및 수(數)인 것이다.

천도는 천(天), 지(地), 인(人),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형이상학(形而上學) 및 형이하학(形而下學)의 이원동일(二元同一) 율(律)이다.

우리나라 최치원 선생(崔致遠 先生)의 속리산에서라는 시한 수를 인용하면 「道不遠人人遠道 山不離俗俗離山=도원원인인원도 산불이속속리산」 “도는 사람과 멀리 있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하며 산은 세속과 떨어져 있지 않는 데 세속 인간은 산으로부터 떨어지구나”라고 하였다.

공간(空間)의 실상론(實相論)은 현실성의 초생료사(超生了死)이다. 사후(死後)의 사생육도(四生六道)를 면하려면 살아있을 때 사생육도의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한다. 기분(氣分) 감정(感情)으로 인한 자비심(慈悲心)일지라도

윤회심(輪廻心)이다. 세상에 죄(罪)를 짓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나는 죄(罪)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천하인(天下人)의 죄를 나의 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악질적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행위(行爲)는 이미 내마음이 악질이 되고 윤회심(輪廻心)이 생긴 것이다. 또 천하인(天下人)의 공덕은 내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화후단련(火候鍛鍊)은 바로 성질단련(性質鍛鍊)이다. 억울한 마음이 또 다시 기압(氣壓)을 받을 때 진실로 뉘우침의 정신으로 참회(懺悔)를 행하면 모든 죄악도 공덕이다. 화후(火候)가 없는 공덕은 그 공덕도 죄악이며 오늘날 죄를 부인(否認)하는 수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도를 해왔다.

남의 죄를 볼 줄 아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 남의 약점(弱點)이 내 머리속에 들어오면 이미 내 머리속에 마귀(魔鬼)가 침입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불교선공(佛教禪工)에 강용복호 삼혼칠백(降龍伏虎 三魂七魄)의 중생념(衆生念)을 제도하는 법문은 오직 참회법(懺悔法)이다.

앞으로 점전사(點傳師) 및 명리 도친(明理 道親)들이 철저히 참회수행법과 화후단련의 설법을 집중적으로 알아야 성숙한 성분(性分)의 수도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보(普渡)를 지나고 화후(火候)를 위주(爲主)로 하면 어떠한 악질적인 사람이라도 부처와 같이 모실 수 있고 혹 모실 수 없는 기분(氣分)을 가지고 있으면 악질적 제작자(惡質的 製作者)이다. 골치거리의 말을 듣거나 일이 생길 때 나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사면(赦免)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넙넙고천(廉廉告天)이라는 말은 높이 서 있는 하늘(天)이 아니고 가까운 저심천(低心天)을 뜻한다. 화후(火候)에는 양화(陽火) 및 음화(陰火)가 있으며 화(火)는 고(考)이며 해원 소죄(解冤 消罪)의 화(火)이고 양덕지모(養德之母)다. 인내천(人乃天)과 천내인(天乃人)이라고 하는 것은 화후부족(火候不足)의 지식인들의 얕은 지식이다.

事 (사)

사(事)는 일이다. 사(事)에는 선천적(先天的)인 사(事)와 후천적(後天的)인 사(事)로 분류한다. 즉 마음먹는 일은 선천(先天)이요, 몸이 행동하는 일은 후천(後天)이다. 마음의 판단기준율(判斷基準律)에는 삼차원(三次元)의 구분이 있다. 즉 첫째는 원시심(元始心=원시적 마음), 둘째는 평등심(平等心=평등적 마음), 셋째는 원만심(圓滿心=원만적 마음)의 세가지가 있다.

이상 세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데 적극적 소극적(積極的 消極的)인 종교문화 예술이 형성된다.. 또 마음의 처사(處事)에는 규칙적 예의적 율동적(規則的 禮儀的 律動的)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예(例)를 들면 규율 없는 예의(禮儀)는 비굴(卑屈)한 예의다. 그러므로 규구(規矩)에는 예의적(禮儀的), 사무적(事務的), 심적(心的), 곡율(曲律), 평면(平面), 원점등(原點等)이 있는 것이다. 수도의 일상생활의 행(行), 주(住), 좌(坐), 와(臥)를 종단(宗團)이나 사회단체나 완전히 일체적(一體的)으로 규구(規矩)의 율동적(律動的) 화후(火候)를 취하여야 하겠다. (※규구(規矩)콤포스나 자.)

염두(念頭)의 제한된 일(事)은 규구(規矩)에 입각하여 자율화된 유식(有識)한 사람에게 배우는 마음의 공부(功)가 있는 것이고 소인에게 공경심(恭敬心)을 가짐으로써 당신의 공덕심(功德心)이 생기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죄악(罪惡)을 갖는 사람을 생불(生佛)과 같이 모시면 비록 완전히 감화되지 않아도 당신의 무한한 불광(佛光)이 이미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화후성숙기(火候成熟期) 추수(秋收)의 저녁 종(鍾)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하루속히 참회(懺悔)를 하여야 한다.

참회의 공부는 무한의 불심(佛心)이요, 죄(罪)를 알아내는 것은 귀근인모(歸根認母)의 길이다. 남과 밀접한 대화를 할 때 옆에 서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가장 시례되는 사(事)이다. 남의 약점(弱點)을 잡아 비굴(卑屈)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은 상천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약점을 남에게 옮기면 그 즉시 공간세계(空間世界)에서 당신을 모략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므로 참회(懺悔)는 성사(成事)요 질투는 패사(敗事)이다.

참회(懺悔)는 도심(道心)하나 뿐이다. 누구나 다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은 다 선인(善人)이요 비위가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악질자(惡質者)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이 있다. 그것은 생명체의 자연조직(自然組織)이라고 한다. 예(例)를 들면 독사(毒蛇) 뱀은 자기들 끼리는 독기(毒氣)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생태원리(生態原理)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생각해 볼 문제(問題)이다.

머리속에 남의 죄악을 두지말라. 신경질이 없어지면 생명체의 지옥(地獄)이 개조가 된다. 앞으로 운영방침(運營方針)에는 참회(懺悔)밖에 없다. 도덕훼손(道德毀損) 및 권력행사(權力行事)를 하는 사람은 선불이 계시어 감찰(監察)하시니 우리는 의심 소심(疑心 小心)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실성(眞實性)의 참회자가 나타나면 불실성 수도자(不實性 修道者)가 여지(餘地)없이 그러한 심리(心理)를 쓰지 못하는 자연화(自然化)의 원리규칙(原理規則)이 들어 있다.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 짓겠는가?

처사(處事)할 때 자기도 모르게 질투와 모략으로 쌓여져 죄없는 것을 죄를 만들어 놓고 죄인지 공인지 그 두꺼운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호도자(護道者)는 고도자(考道者)보다 감정이 악화된 실정이다. 고로 결과는 악도 아니고 덕도 아니다. 같이 참회(懺悔)하여 사는 길 뿐이다. 이미 지나간 사(事)는 지나가기로 하고 앞으로의 일을 잘못되는 것도 미워말고 잘되는 것도 자랑하지 말라. 수도는 내 수도를 해야지 남을 보고 기분적(氣分的) 수도는 헛수도라고 본다.

認 識 (인식)

원상복구(原狀復舊)는 귀근인모(歸根認母)와 같은 것으로써 생명체 원점(原點)의 기준정율법칙(基準定律法則)은 삼위일체(三位一體)이다. 물질력(物質力).정신력(精神力).생명력(生命力)의 힘이 구성하는 조건은 인식(認識)의 기원(起源)에서 나온다.

인식(認識)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생기고 그 판단력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업(業)으로 인하여 대인관계(對人關係) 및 처사관계(處事關係)와 자신의 문제등 다양상(多樣相)으로 형성된다. 무극관(無極觀) 태극관(太極觀) 및 상극관(象極觀)의 삼위인식관념(三位認識觀念)이 있기 때문에 다양상(多樣相)의 법칙(法則)이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非正常的) 인식문제(認識問題)를 정상화 시키려고 충성(忠誠)을 다 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저차원(低次元)의 출발점이다. 과연 저차원(低次元)의 개념(概念)이 얼마나 얕은지 고차원의 인식개념(認識概念)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은 반드시 논리적(論理的) 삼차원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구분이 된다. 삼차원은 물질적 사회 상극차원(象極次元)의 기준(基準)이며 그 다음은 시·공(時·空)의 량(量)의 기준력(基準力) 세계인 태극차원(太極次元)이고 그 다음 극념작성(克念作聖) 및 원상복구(原狀復舊)의 참회적 고백정신(告白精神)의 경지가 무극(無極)의 차원이다.

극념자(克念者)는 성자(聖者)가 되고 망념자(妄念者)는 광자(狂者)가 된다. 성자(聖者)는 이념(理念)이요. 망념자(妄念者)는 광념(狂念)이요. 광념자(狂念者)는 욕계(欲界)이고 극념자(克念者)는 이계(理界)이다.

지금은 이계(理界)와 욕계(慾界)의 이원세계(二元世界)로 전개되는 심리작적(心理作戰)이다. 참회의 목적은 원한(怨恨)의 집념(集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며 영도자(領導者)는 눈물의 참회와 정죄구세(頂罪救世)의 심원(心原)으로 표명(表明)하여 후학에게는 염두(念頭)를 씻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한 무욕상태(無慾狀態)의 순리무욕(純理無慾)의 경계에 가서야 진참회(眞懺悔)가 성립된다.

과연(果然) 성도란 무엇인가?

비굴(卑屈)한 인간이 성도되든지 똑똑한 인간이 성도되든지 모든 종단(宗團) 및 재단(財團)이 훌륭한 조직(組織)으로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운영되지만 실은 그 훌륭한 조직체제 속에서 합법적인 훌륭한 사기(詐欺)꾼이 생기기 쉽다.

만약 우리 천도에서 도통적 성도사(成道史)를 모르고 일반사회의 조직강화만 주장하면 생명체의 구원(救援)은 희박(稀薄)한 것이다. 법에 입각(立脚)한 양심은 피동적(被動的) 양심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양심(本良心)의 노역화(奴役化)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태성(本態性) 양심을 가르쳐주는 것은 도(道)인 것이다. 도의 중심점(中心點)의 하나로부터 구심성(求心性)과 반심성(反心性)의 두 길로 나누어졌다. 구심성(求心性)의 원상복구(原狀復舊)는 극념작성(極念作聖)의 참회법(懺悔法)을 가져야 한다.

참회는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이 있지만 육체적 참회, 정신적 참회, 사무적 참회, 조직적 참회, 행동적 참회 또 참회 속의 참회를 들 수 있다. 진리의 설법을 잘하며 또 위대(偉大)한 공로자(功勞者)가 있지만 위대한 참회자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자기의 도(道)와 진리가 높음을 자랑하지만 참회의 자랑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좌도방문(左道旁門)인 산신령(山神靈)에게 백일기도와 같은 욕계(慾界)의 마음으로써 백고(百叩) 및 만고수(馬叩首)하여도 실은 진참회(眞懺悔)의 일고수(一叩首)의 소망(所望)을 베풀기보다 차라리 오해(誤解)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진참회(眞懺悔)로 하면 그 결과가 백일기도보다 낫다. 이와같은 것이 실사화법(實相化法)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원상복구(原狀復舊)의 극념작성(克念作聖)을 새로이 인식(認識) 시켜주는 것이다.

무극(無極)의 차원은 인간의 조능성 문제(造能性 問題)를 창조하는 것으로서 참회에 입각하지 않는 종단(宗團) 및 재단(財團)의 조직은 그 조직속에 각종의 권세와 파쟁(派爭)의 요소(要素)로 독점적 진리(獨占的 眞理)를 만든다. 그 진리는 상대성의 진리 이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이 생긴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비완성의 물질속에 공해가 생겨 났다.

비완성(非完成)의 이념으로 형성된 공해의 조직은 그 결과가 산성(酸性)과 같은 세포를 양성하고 뇌세포(腦細胞)의 인자 영향력(因子 影響力)은 윤회의 대죄성 영질(帶罪性 靈質)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백보다 나은 것은 참회(懺悔)이다.

懺悔爐中走一遍(참회로증주일편)

贊曰 (찬왈)

始知天外還有天(시지천외환유천)

곤수곡인어신독제(昆水谷人錄於慎獨齋)

1977년 (음) 8월 1일(一九七七年 八月 一日)

참회(懺悔)의 부활(復活)

생명체의 육법(六法)의 범죄요인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이다. 이것을 응용하여 보면 무한계(無限界)인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식별 때문이다. 이는 업계(業界)에 속한 무한진(無限盡)의 세계관(世界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참회라야 모든 것이 멸도(滅渡)될 수 있다.

유(有)로서 무(無)로 들어가는 것은 진공간의 집합력이 마이너스 성(性)으로 전환됨인데 원상복구(原狀復舊)의 힘이 곧 부활력(復活力)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색(色)과 공(空)의 상대성원리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의 원점(原點)으로 귀일(歸一)된다.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영(零)콤마(○)라 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인 태생, 난생, 습생, 화생(胎生, 卵生, 濕生, 化生) 유색생, 무색생(有色生, 無色生) 유상생, 무상생(有想生, 無想生) 비유상생, 비무상생(非有想生, 非無想生) 등을 모두 열반(涅槃)시킬 수 있으면 완전히 멸도(滅渡)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색(有色)과 무색(無色)의 생명체와 유상(有想)과 무상생(無想生) 혹은 의식(意識)의 존재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들도 하늘의 큰 사면(赦免)을 맞은 이때에 지극히 정성스런 참회를 실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넓은 덕(德)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권을 얻을 수 있게된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죄와 그밖의 모든 생명체의 죄를 인정하여야만 다른 모든 죄념(罪念)들도 건질 수 있고 지나간 만겁(萬劫)의 죄건(罪愆)도 감하게 되며 미래의 균살도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정(無情)의 념(念) 하나으로써 모든

유정(有情)의 념(念)을 건져주는 것이다. 이로써 위로는 하한성두(河漢星斗)의 생명체를 구원시켜 주고 가운데로는 만념(萬念)을 가진 인간들을 건져주고 아래로는 유명위혼(幽冥鬼魂)까지 건져 줘야한다.

죄에는 인식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인식할 수 없는 죄가 있다. 또한 공해(公害)도 유색의 공해 무색의 공해 유식층(有識層)의 공해 무식층의 공해 자신의 본질죄(本質罪)도 모르면서 성리심법을 론(論)하는 공해 참회하지 않은 존사중도(尊師重道)의 공해 결국 완성되지 아니한 인격은 죽은 후에도 역시 영계(靈界)의 공해일 뿐이다.

과거의 성현(聖賢)들이 설한 참회는 궁극적(窮極的)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참회가 없었으나 현대의 성인은 바로 정죄(頂罪)를 하여 모든 죄를 부담한다. 진실한 참회자는 천(天)의 명명(命命)을 가호(加護)한다. 그것은 귀근(歸根)과 복명부활(復命復活) 달본환원귀가인모(達本還源歸家認母) 및 초생료사(超生了死)가 되는 유일(唯一)한 길이다. 따라서 참회하지 않고 보시(布施)한 공덕은 바로 죄(罪)의 공덕(功德)이다. 그러므로 참회만이 부활될 수 있고 또한 부처도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는 자는 마(魔)가 될 뿐이다.

지금은 불(佛)과 마(魔)를 구분하여 심판할 때이며 오반사귀(五盤四貴)도 참회의 단계성(段階性)에 따라 반(盤)을 결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회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성도(成道)의 결과도 달랐던 것이다.

곤수곡인어신독제(昆水谷人於慎獨齊)

1980년 1월 (一九八〇년 一月)

경신의 전망, 참회의 부활 중에서(庚申의 展望, 懺悔의 復活中에서)

원참문 (愿 懺 文)

건 여운 (乾 餘 蘊)

○ ○ ○ 건심궤재 (虔 心 跪 在)

곤 신사 (坤 信 士)

명명상제 연하 행수진전 (明 明 上 帝 蓮 下 幸 受 眞 傳) 삼고수 (三 叩 首)

경건한 마음으로 노모님 연대 아래 꿇어 앉아서 다행히 진전을 받았습니다.

미륵조사 묘법무변 호비중생 참회불전 (彌 勒 祖 師 妙 法 無 邊 護 庇 衆 生 懺 悔 佛 前)

개과자신 동주천반 (改 過 自 新 同 註 天 盤) 삼고수 (三 叩 首)

미륵조사님의 갓이 없는 묘법으로 우리 중생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옵고 허물을 고치어 새로운 사람이 되겠아오니 천반 에 같이 들게하여 주옵소서.

범개불당 전도착란 망기조사 사죄용관 (凡 係 佛 堂 顛 倒 錯 亂 望 祈 祖 師 赦 罪 容 寬)
십고수 (十 叩 首)

무릇 모든 불당에서 저지른 잘못된 점을 조사님께 바라옵고 비옵나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무아미 시불천원 (南 無 阿 彌 十 佛 天 元) 십고수 (十 叩 首)

무량한 광명, 무량한 지혜를 갖추신 조사님께 머리숙여 귀의 합니다.

참회원문 (懺悔愿文)

육조 혜능 조사께서는 참회에 대하여 과거의 잘못된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 참(懺)이고 이후에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悔)라고 하였다.

懺者其前愆 悔者悔其後也

참자기전건 회자회기후야

참회에는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이 있다. 이참(理懺)이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생사번뇌에 시달리는 자신을 참회하는 것, 즉 자기마음이 부처인줄 모르는 어두어진 마음을 참회하는 것을 이참(理懺)이라 하고, 사참(事懺)이란 몸으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것으로 과거세세를 두고 지은 십악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업장(業障)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참회계(理懺悔偈)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

죄의 자성 본래 없고 마음따라 일어난 것

십악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마음이 멸하면 죄따라 없어지네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

죄없고 마음 멸하여 두가지 다 비우면

시즉명위진참회(是則名爲眞懺悔)

이것을 이름하여 참된 참회라 하네.

사참회계(事 懺 悔 偈)

아석소조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嗔痴)

크고 작은 모든 죄가 탐진치로 생기었고

종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

나는 지금 일체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고 비나이다.

참회원문(懺 悔 愿 文)

제자 ○ ○ ○ 등 종전념 금념 금후념 념념불피 우미염 종전소유악업 우미등죄
실개참회 원일시소멸 영불복기

(弟子 ○ ○ ○ 等 從前念 今念 及後念 念念不被 愚迷染 從前所有惡業 愚迷等罪
悉皆懺悔 願一時銷滅 永不復起.)

제자 ○ ○ ○ 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과 현재에 생각생각이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도록하여 주십시오 종전에 있던 모든 악업과 이리석고 미혹한
죄들을 다 살피시어 참회하도록 하시옵고 원하옵건데 이 모든 악업을 일시에
소멸하여 영구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여 수시옵소서.

제자 ○ ○ ○ 등 종전념 금념 금후념 념념불피 교광염 종전소유악업 교광등죄
실개참회 원일시소멸 영불복기

(弟子 ○ ○ ○等 從前念 今念 及後念 念念不被 驕誑染 從前所有惡業 驕誑等罪 悉皆懺悔 願一時銷滅 永不復起.)

제자 ○ ○ ○은 과거의 일어났던 모든 생각과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생각 등 생각생각이 교만하고 거만한데 물드지 않도록하여 주시옵고 종전에 있던 모든 악업과 교만하고 거만한 죄를 다 살피시어 참회하도록 하시옵고 원하옵건데 이 모든 악업을 일시에 소멸하여 영구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 ○ ○등 종전념 금념 금후념 념념불피 질투염 종전소유악업 질투등죄 실개참회 원일시소멸 영불복기

弟子 ○ ○ ○等 從前念 今念 及後念 念念不被 嫉妬染 從前所有惡業 嫉妬等罪 悉皆懺悔 願一時銷滅 永不復起.

제자 ○ ○ ○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과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생각 등 생각생각이 시기하고 질투한 데 물들지 않도록하여 주시옵고 종전에 있던 모든 악업과 시기하고 질투한 죄들을 다 살피시어 참회하도록 하시옵고 원하옵건데 이 모든 악업을 일시에 소멸하여 영구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참회도죄경 (懺悔渡罪經)

곤수곡인 해설 머리말 (昆水谷人 解說序文)

미륵진경은 우리의 도가 언제 세상에 내려왔나를 예고한 편이다. 미륵진경은 도를 찾으라고 가르쳐 주는 경이요, 참회도죄경은 도를 이미받고 성도를 시켜주는 경이다. 중생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부처님이 다알아 볼 수 있고 그런데 나는 부처님과 같이 나의 죄를 얼마나 알아 볼수 있고 나의 영혼의 경계에 어디까지 가있는지 이것이 곧 참회의 경계를 가는 것이다.

지금 성모 수원의 천반은 청·홍양기의 불성선신들과는 다르다. 오안육통이나 각(覺)과 선(禪)의 방법은 천반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청·홍양기의 불성 선신들이 이때 모두 세상에 내려오니 또다시 수도 참회해야 겁살의 죄를 짊어지고 참회하여 정겁구세의 원을 행하여야 한다. 왜 오안육통의 선(禪)과 각(覺)이 천반으로 못가는 이유는 인간의 육체도 윤회이요, 마음도 윤회이다□ 모든 생각의 염은 모두 윤회이다.

그래서 불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일념으로부터 살아 나왔다”고 했다. 그러므로 염이 끝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또한 염이 없으면 나지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도 없다. 옛날 성현들은 “염을 닦으라”고 했다. 또 세상을 멀리하고 인간도 멀리하고 몸을 감추는 방법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도법을 이용했다. 따라서 윤리법칙과 해탈법칙도 응용한다.

수천년의 역사를 흘러 내려오는 동안 다양성의 종교 법칙이 있지만 여의 해결 문제는 완전하지 못했다. 지금의 성모수원 대도는 참회로 하여금 죄를 건지는 길인 것이다.

참회도죄경 (懺悔渡罪經) 원문 및 해석

고해무변죄무변(苦海無邊罪無邊)

고해의 바다는 끝이 없고 죄도 끝이 없음은

일체사의기죄연(一切思意起罪緣)

모두 생각하는 뜻에 따라 죄의 인연이 일어나누나

위도죄연행참회(爲渡罪緣行懺悔)

죄의 인연을 고해로부터 건져 주기위해 참회를 행하며

고마미진 죄미완(考魔未盡罪未完)

죄를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도 그치지 못하리

천령지령인령죄(天靈地靈人靈罪)

천상의 영과 지옥의 영 및 인간의 영혼들이 지은 죄는

만세원건일세환(萬世冤愆一世還)

만세상의 원한을 이 세상에서 다 갚아야 하리라

아금통개의념죄(我今痛改意念罪)

오늘날 내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죄를 알고 그 아픔을 알아 뉘우치라

괴교투부조천견(乖巧妬婦遭天譴)

피와 재주 그리고 질투의 부녀들은 천벌을 받게되리

고마인아죄념기(考魔因我罪念起)

마귀의 시험은 나의 생각이란 뜻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일체조수응당연(一切遭受應當然)

모든 비참한 시험을 마땅히 받아야 하리

종금원발참회원(從今願發懺悔愿)

지금으로부터 참회의 심원을 올리니

서도죄열하혼원(誓渡罪孽謝魂冤)

원한의 죄를 지은 영혼들 건져 주소서

은전복부망백고(恩前伏俯忙百叩)

자모께서 대자대비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백고수를 올리니

일체혼령막명완(一切魂靈莫冥頑)

모든 신령들이여 명령을 듣고 놀라지 마라

천상환유인간조(天上還由人間造)

천상도 인간으로 하여금 된다는 것이니

인간참회시성천(人間懺悔是成天)
인간의 참회는 곧 하늘을 이룩하는 것이니라

불성성천빙심원(佛聖成天憑心愿)
부처님과 성인을 하늘이 이룩한 것은 마음의 원 하나뿐이니

산천대사재인간(三天大事在人間)
이·기·상의 삼천의 큰일은 인간의 일에 달려있으니

니아심원동참회(你我心願同懺悔)
너와 나의 마음의 원함을 다같이 참회하여

지념자은사죄관(持念慈恩赦罪寬)
자모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죄에 대해 용서를 빌라

요상성불선요죄(要想成佛先了罪)
부처님이 되고 싶으며 먼저 죄를 끝이고

원요죄건도한원(願了罪愆渡恨怨)
죄를 끝이고 싶으면 원한을 건져 주라

자은설하참회원(慈恩設下懺悔愿)
자모의 은혜로서 참회원을 내려주오

도진명부세진원(渡盡冥府洗塵冤)
명부와 홍진의 원한을 모두 건져 주리

휴청사인호설법(休聽邪人胡設法)
신비스럽게 아무렇게나 설법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며

심령몽수시마전(心靈夢受是魔纏)
꿈같은 심령이 학설을 들으면 마귀한테 거리리

진불진법빙진원(眞佛眞法憑眞願)
참 부처님과 참 성인의 참을 원하는 것은 하나같고

수원고동도당전(收圓古東渡當前)
지금의 수원의 일은 옛동쪽 땅에서 건지리

무영산전합동제(無影山前合同祭)
그림자 없는 산앞에 합동제를 올리고

당상기도불가참(妄想祈願不可參)
허심 탐욕의 기도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어라

금동옥녀휴지념(金童玉女休持念)
백년후에 금동과 옥녀를 모시고 왔다는 생각을 두지말고

만팔미륵물수탐(萬八彌勒勿須貪)
만팔년의 미륵세상에는 잘 살 수 있다는 욕심을 내지말라

참회미정고미진(懺悔未淨考未盡)
깨끗이 참회지 못하니 시험도 끝이지 않으니

일세참회만세천(一世懺悔萬世天)
한 세상에 참회하여 만세상의 하늘을 이룩하라

일인미회일인환(一人未悔一人罪)
한 사람의 참회치 못함은 한사람의 애원을 풀지 못하고

만안저두만인선(萬人低頭萬人先)
만인 앞에 머리 숙임은 만인에게 모심을 받으리

엄호참회엄호죄(掩護懺悔掩護罪)
참회를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속여 감추어 두는거와 같으며

동정체면자조연(同情體面自遭淵)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친구의 체면에 의해 동정한다면 스스로 고해를 당하리

인정형식위불법(人情形飾違佛法)
사교에의한 거리의 정은 불법을 위반하는 것이요

체진험실세죄원(體眞驗實洗罪冤)

몸과 마음을 사실대로 느끼고 원한의 죄를 씻어주라

천뢰개봉휴원왕(天雷開封休冤枉)

천타오뢰가 발생할 때 누구든지 원망하지 말고

무궁자문여심전(撫窮自問汝心田)

머리를 숙이고 자기자신의 마음에 물어보라

참회 백고수(懺悔 百叩首)

私 心

- 私心..以妙觀察智觀照本心
 사심..모지혜로써 자기 지혜를 살피고 본심을 비추어보라!
- 計較心(계교심).. 잔피로써 비교하며 따지고 다투는 마음.
- 是非心(시비심).. 옳다 그르다 따지는 마음.
- 妬賢心(투현심).. 남이 어진일을 하면 시기질투 하는 마음.
- 惡毒心(악독심).. 흉악하고 독살스런 마음.
- 榮辱心(영욕심).. 명예나 영화를 얻기 위하여 수치를 모르는 마음.
- 忤逆心(오역심).. 윗사람의 뜻을 반대하며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마음.
- 名利心(명리심).. 명예와 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마음.
- 偏見心(편견심).. 불공평하게 한 쪽으로 치우치고 편드는 마음.
- 小人心(소인심).. 인격이 낮고 도량과 소견이 좁은 마음.
- 慾望心(욕망심).. 무엇을 행하거나 취하고자 함과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
- 虛榮心(허영심).. 실속없이 겉치레만 차리는 명예와 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
- 妄想心(망상심).. 망령되고 허황된 마음.
- 放蕩心(방탕심).. 기탄없이 행동하고 꺼리는 것없이 멋대로 하는 마음.
- 欺騙心(기편심).. 남에게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마음.
- 貢高心(공고심).. 공을 많이 지었다고 자기를 높이고 뽐내며 남을 깔보는 마음.
- 報復心(보복심)..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
- 嫉妬心(질투심).. 남의 잘 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驕慢心(교만심).. 자기가 가장 높은체하고 자기 자랑만하며 남을 얕보고 멸시하며 뽐내어 방자한 마음.

虛僞心(허위심)..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하는 마음.

執着心(집착심).. 마음이 한곳에 쏠리어 잊혀지지 않은 마음.

猜疑心(시의심)..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

批評心(비평심).. 옳고 그름과 선악과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쁜것 등을 평론하는 마음.

享受心(향수심).. 잘못된 일도 잘했다 하며 받들어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

分別心(분별심).. 흑과 백을 구분하고 차이(差異)를 구별하고 과별 등을 나누는 마음.

怨恨心(원한심).. 남을 원망하며 불평을 품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원수같이 여겨 원한을 품는 마음.

邪惡心(사악심)..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

爭權心(쟁권심).. 권리를 탐하여 다투는 마음.

不平心(불평심).. 공평하지 못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忿怒心(분노심).. 원망하여 화를 내는 마음.

袒護心(단호심).. 한쪽만 편을 들어 역정내는 마음.

邪見心(사견심).. 간사하고 바르지 못하며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망령된 생각으로 보는 마음.

侵拈心(침점심).. 침범하여 빼앗아 차지하려는 마음.

奸邪心(간사심).. 간사하고 교활하며 남을 잘 속이는 마음

得失心(득실심).. 얻음과 잃음. 이익과 손해, 성공과 실패, 마땅함과 마땅하지 아니함, 장점과 단점 등을 생각하는 마음.

掩藏心(엄장심).. 자기 잘못을 숨기고 감추며 남의 잘못도 숨기어 감싸고 감추어 주는 마음.

霸拈心(패점심).. 억지로 빼앗아 자기것으로 만들려는 마음.

好勝心(호승심).. 지는 것을 싫어하고 경쟁심이 강하며 남을 꼭 이기고자 하는 마음.

貪嗔痴愛心(탐진치애심)..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 애정 등을 없애지 못하는 마음.

自私自利心(자사자이심).. 사사로이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

存心不良心(존심불량심).. 심성이 불량한 마음.

公 心

公心.. 以先天本性發揮先天本心.

공심.. 선천의 본성으로 천선의 본심을 발휘하라.

尊敬心(존경심).. 남을 존경하고 숭배하며 공경하는 마음.

報恩心(보은심)..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堅固心(견고심).. 의지가 굳어 변하지 아니한 마음.

憐憫心(연민심).. 불쌍하게 여기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마음.

眞人心(진인심).. 진리를 깨달은 마음.

喜捨心(희사심).. 재물을 기쁘게 공덕하는 마음.

公益心(공익심).. 도무, 사회, 공중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마음.

和睦心(화목심).. 서로가 뜻을 맞추어 정답게 지내는 마음.

忍辱心(인욕심).. 수치를 당하여도 참고 이기는 마음.

慈悲心(자비심)..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같이하는 마음.

平等心(평등심).. 공평하여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생각하는 마음.

聖賢心(성현심).. 성인과 현인같이 공심으로 지덕(智德)이 갖추어져 있는 마음.

孝心(효심).. 효성이 지극한 마음.

광명심(광명심).. 넓고 밝게 비추는 마음.

道徳心(도덕심).. 도를 닦아 사단이 통하고 오상의 덕과 오륜팔덕이 갖추어져 있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마음.

忠恕心(충서심).. 성실하고 정직하며 정상을 살펴 용서하고 동정이 많은 마음.

赤子心(적자심).. 갓난 아이상태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마음.

出頭心(출두심).. 직접 얼굴을 내놓고 두각을 나타내는 마음.

刻苦心(각고심).. 대단히 애를 써 노력하는 마음.

菩提心(보리심).. 부처님의 지혜와 불도의 정각을 구하는 마음.

忍耐心(인내심)..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惻隱心(측은심).. 가엾게 여겨 속을 태우며 동정하는 마음.

不二心(불이심).. 오로지 한마음.

好心(호심).. 마음이 없는 그 마음.

道心(도심).. 순수한 부처님 마음.

愛心(애심)..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佛心(불심).. 대도를 깨달은 성인의 마음.

仁心(인심).. 인자하고 아름다운 마음.

中正心(중정심)..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않는 바른 마음.

體諒心(체량심)..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깊이 헤아려 잘 보살피는 마음.

團結心(단결심).. 한덩어리로 뭉치는 마음.

義務心(의무심).. 맡은바 직분을 응당 책임지고 맡는 마음.

博愛心(박애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

禮讓心(예양심).. 겸손하게 예를 두터이하여 사양하는 마음.

慈善心(자선심).. 대용맹심으로 보리를 구하는 대자비를 펴서 중생을 제도 하는 마음.

克己心(극기심).. 자기의 사욕을 이성으로 눌러 이기는 마음.